

# “의지 상관없이 인파에 휩쓸려...순식간에 몸 붕 뜨며 짓눌려”

### 이태원 헬러윈 참가 현장서 중상 입은 광주 30대 이모씨의 생환기

“사고 현장은 전쟁통이었어요.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2일 현재 15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헬러윈 참사’ 당시 참혹한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광주지역 생존자의 말이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이모(여·34)씨는 지난 29일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친구 7명과 서울로 올라갔다.

이씨는 상경한 김에 광주로 바로 갈 수 없다는 친구들과 함께 헬러윈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이태원을 찾기로 했다.

29일 밤 이태원역에 간 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밤 10시에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나가자마자 이씨 일행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파에 휩쓸려 해밀턴호텔 골목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때부터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골목길에 들어선 시점부터 가고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골목에는 과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씨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밀턴호텔 골목의 아래까지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보다 체구가 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계속해서 밀리면서 친구들 무리와 1m 정도 떨어졌다.

해밀턴호텔 가벽을 왼쪽에 두고 인파에 끼인 채 언덕길을 내려가야 했던 이씨는 주변에서 누군가 “내려가요! 내려가요! 못올라와요!”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밀지마! 밀지마!”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어디다가 진짜 큰일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서서히 밀리면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곧이어 해밀턴호텔 골목에 있던 군중속에서 참사가 일어났다. 이씨는 이때 체감상 5초에 걸처서 사 람들이 다같이 넘어진 것 같다고 기억했다. 불행 중

결혼식 참석 후 친구들과 이태원행

골목길 들어선 순간 ‘위험하다’

사람들 극도로 흥분된 상태

골반 위까지 깔리며 패닉상태

목 막힌 것처럼 아무런 소리 안나

절체절명 순간 알게 호흡 반복

40여분 뒤 경찰 도착 산소호흡기 줘

다리 감각 없어 깁스...기항 치료 중

인파 몰리는 곳 안전 확보됐으면

다행으로 이씨의 친구들은 이씨보다 앞서 있어 참 사에 휘말리지 않았다.

해밀턴호텔 골목 아래 쪽에 있어 쓰러진 군중에

골반 위쪽까지 깔린 상태로 짓눌렸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살려주세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라는 외침이 들렸다.

이씨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패닉상태가 와서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씨는 애써 침착하기 위해 노력했고 알게라도 호흡을 반복해서 쉬었다.

이씨는 약 40여분 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씨는 ‘앞에 깔린 사람은 의식을 잃은 듯 축 처져 미동이 없었다’면서 “주변에서 먼저 구조받기 위해 손을 뻗고 몸부림 치는 과정이 더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눈물을 내비쳤다.

경찰은 이씨를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다만 다리가 옹골쳐 실패하자 산소호흡기를 건네며 “침착하시고 호흡하고 있으시면 위쪽부터 구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남성이 “경찰입니다 제 말에 따라주세요”라며 시민 5-6명과 함께 극적으로 이씨를 구출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씨는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피를 토하는 사람,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거나 이미 숨져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시민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 중이다.

이씨는 시간 하체에 피가 통하지 않았던 터라 심장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했다. 하지만 왼쪽 다리에는 여전히 감각이 없고 양쪽 다리 모두 깁스를 해 휠체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다.

이씨는 “이태원에서 사고 당하려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는 축제를 비롯해 인파가 많이 몰리는 현장에는 항상 안전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하늘로 광주 지역 희생자들 장례 마무리

‘이태원 헬러윈 참사’ 광주지역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2일 마무리 됐다.

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차모씨(42)의 발인이 있었다.

차씨는 고등학생때 백혈병을 앓던 쌍둥이 형에게 골수이식을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쌍둥이 형은 몇년 뒤 세상을 떠났지만 차씨는 “형 대신 성공해 어머니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차씨는 전남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의 한 금융 공기업에 취직했다. 지난 추석 즈음에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아파트도 선물했다고 한다.

차씨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해도 공부만 하더니, 어떻게 나를 장례식장으로 부를 수가 있나”라며 흐느꼈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박모씨(여·28)의 발인이 진행됐다.

광주가 고향인 박씨는 부산에서 간호보조일을 하

며 직접 모은 학비로 뒤늦게 영남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2년 전에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 취업해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달 30일 이태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2일 오전에는 광주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김모씨(26)의 발인이 엄수됐다. 광주에서 대학을 마친 김씨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난 8월 원하던 서울 소재의 한 기업에 입사했다. 김씨는 취업 기념으로 친구 6명과 이태원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장모(25)씨가 영면에 들었다. 장씨는 올해 초 한 제조업체에 인턴으로 입사해 여웃돈이 생겼으며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태기도 했다.

광주전남 희생자 10명 중 2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제외한 8명의 장례절차가 2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사 희생자’로 바뀐 현수막

광주시 합동분향소에 걸린 현수막이 2일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뀌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애도기간에...광산구 외유성 행사 강행 물의

충북서 1박 2일 워크숍 진행

‘이태원 헬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광주시 광산구가 외유성 행사를 강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 6명과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 84명이 지난 1일 충북 단양과 제천 일대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21개 동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유공 주민자치위원 표창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특강 및 고수동굴 탐방, 정봉호 유림선 및 모노레일 체험 등 관광성 일정이 포함됐다.

광산구는 출발 날짜가 임박했다, 다른 일정으로 재추진이 어려워 워크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못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공연은 취소했고, 첫날 저녁 어울림마당은 단양강 잔도길 야간 탐방으로 대체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산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광산구청장이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예정된 행사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주민 자치위원과 공무원이 보란 듯 외유성 워크숍을 떠난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정행”이라며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관계서는 “워크숍을 연기하지 못한 것은 협의의 입원 상태에서 행사 전날 급박하게 취소하기가 어려웠던 경건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고수동굴과 정봉호 문화탐방은 희망자에 한했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기속사서 음주 해양경찰 교육생 법원 “일방적 퇴교 조치는 부당”

기속사서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해양경찰교육생들의 일방적인 퇴교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퇴교당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A·B씨가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B씨는 교육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8일 A·

B씨는 다른 동기생 3명과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학생생활규칙에 따라 벌점 40점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됐고 ‘생활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벌점 30점 이상)는 퇴교 조치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직권 퇴교조치를 받았다. 이에 A·B씨는 “퇴교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 있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B씨의 퇴교 조치는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교육상 필요와 학내 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3897	1	북구 신동동 643-1 용두중공아파트 104동 2층 202호 59.99㎡	아파트	190,000,000 190,00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예별도 등기 있음
2022타경 4883	1	북구 본촌마을길 178, 제4층 제404호 [본촌동, 베스트클래스아파트] 74.6006㎡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2022타경 5244	1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4, 제101동 제4층 405호 [월계동, 첨단과학산업단지공공아파트] 92.115㎡	아파트	367,000,000 367,000,000	현황조사 및 기준관리비 322,000원 미납상태
2022타경 63103	1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7층 17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2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6층 16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3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7층 7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4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6층 16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2022.9.6. 기준공용부분관리비 174,360원 미납상태
	5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20층 20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6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3층 13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2022.9.6. 기준공용부분관리비 13,500원 미납상태
	7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8층 8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8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9층 9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9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9층 9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10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0층 10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11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0층 10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12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2층 12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13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8층 18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14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20층 20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2022.9.6. 기준공용부분관리비 289,190원 미납상태
	15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3층 13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3103	16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5층 15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17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6층 16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18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9층 19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19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9층 1902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20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9층 19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21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8층 18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22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7층 7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23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8층 8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24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4층 1401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25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20층 2003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 39.862㎡	아파트	199,000,000 199,000,000		
	2022타경 68191	1	북구 대전동 40, 101동 6층 605호 [오치동, 혁신] 59.85㎡	아파트	91,000,000 91,000,000	
	2022타경 69415	1	서구 화개1로24번길 10, 103동 7층 702호 [금호동, 풍양부영1차아파트] 80.1964㎡	아파트	272,000,000 272,000,000	
	2022타경 69699	1	남구 화산로31번길 17, 303동 18층 1805호 [진월동, 진월3차상업세라비아아파트] 59.40㎡	아파트	143,000,000 143,000,000	2022타경5145 [중복]
	<b>[연립주택 / 다세대 / 빌라]</b>					
	2022타경 61701	1	동구 화산로323번길 17, 3층 301호 [용산동, 용산동도나우이스트] 138.376㎡	다세대	661,000,000 661,000,000	
2		동구 화산로323번길 17, 4층 401호 [용산동, 용산동도나우이스트] 138.376㎡	다세대	661,000,000 661,000,000		
2022타경 67402	1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곡로 78-7, 1층 101호 [천지수출물2차] 84.5793㎡	다세대	190,000,000 190,000,000	현황조사 및 마감비 02만 원 등 관리비 미납상태	
<b>[대지/임야/전답]</b>						
2022타경 4968	1	남구 황양동 산 154 1289㎡ [침향식지분 11/12] 임야		7,948,830 7,948,83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022타경 62841	1	광산구 고흥동 산 70-1 19832㎡ [최행규지분 291/500전부, 연고미상분묘소재, 임야도상 명지이나부속비포장도로로통출입가능]	임야	288,555,500 288,555,5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022타경 68627	1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산 9-4 1996㎡	임야	17,564,800 17,564,800	행지	
<b>[자동차, 중기]</b>						
2022타경 5299	1	사용본거지: 남구 불성중앙로 103, 105동 8차 1호 [불성동, 라인광장아파트] 등록번호: 62C14791 차량: BMW 740Li 연식: 2009	자동차	9,000,000 9,000,000	본관: 광주광산구 상원길 314-16 [수원컨테이너하우스, 070-4102-5929, 10-2612-5929]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9705	1	사용본거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 19 103동 2902호 [각화동, 각화센터힐파크르시아힐스] 등록번호: 169N17742 차량: 쏘나타 연식: 2017 검사유류기각경과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본관: 광주광산구 상원동 211 [상원차량, 062-953-6424, 4,010-5550-8424]
<p>●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 특별매각조건</p> <p>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각대상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시·군·구로 산입한다. 불합형 및 변경으로 인한 통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p> <p>② 공유지가 민사상행방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결정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 보증금의 투입이 공표후부터 매수신고로 인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우선매각자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2. 매각일정일 : 2022. 11. 17. [목] 10:00</p> <p>3. 매각공정기일 : 2022. 11. 24. [목] 16:00</p> <p>4.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원 입찰장</p> <p>5. 매각방법</p> <p>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엄호를 위한 사전변동, 입찰자의 명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기일과 낙찰의 보증금률 등 입찰서류를 받아 입찰행위 후 입찰을 하는 경우, 매수신청의 방법은, 최저매각가격의 1%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권 또는 현금 증빙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 [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함이다.</p> <p>② 다른 입찰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복합체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이다.</p> <p>③ 입찰행위의 투입이 공표후부터 매각결정일까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간의 일괄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p> <p>④ 최고가매수신고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p> <p>6. 매각회기 및 대금납부</p> <p>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자가 아무런 보증금으로도 갈취하고, 매각회기결정이 확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보증금 납부하여야 함이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까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정된다.</p> <p>② 최첨단 대금지급회기 매각대상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회기 종료일 이후 매각대상물 반환을 실시한다. 다만, 대금지급회기 종료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선입금,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한다. 그러나, 매각회기 종료일이 지나면 매각대상물 반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p> <p>7. 소유권 이전 및 인도</p> <p>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대권, 기입부담은 순위여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권이나 기입부담 할소송을 위해서는 통상 매각결정일까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정된다.</p> <p>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p> <p>8. 주의사항</p> <p>① 매각회기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신청의 지양을 통지 받은 날부터 2주 후 매수신청인임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경우인이나, 사법 집행권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아 인정된다.</p> <p>② 입찰행위의 명칭을 매각회기 전에 매각결정일에 매각회기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행명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경쟁참가자의 사본 등을 우편법으로 발송(신선)하고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각대상물 반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행위의 명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④ 입찰행위에 나오실 때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이·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면서 입찰표의 기재 제출하여야 함이다.</p> <p>⑤ 소유권이전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입찰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이다. 그러나, 단·포지매각대상물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한다.</p> <p>⑥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매각회기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매각회기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 유의한다.</p> <p>⑦ 매각대상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방법 - 매각공고 선택]</p> <p>⑧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법원의 의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특히 그 중 일부는 다른 내용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대상물 반환을 실시하지 않음, 대금지급회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을 일련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매각회기 종료 후 매각대상물 반환을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2022. 11.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지연					